



발표일 : 2016년 7월 29일

최근 6년간(2011~2015년) 8월 상순에는 남해와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는 파고가 낮았음. 중순에는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는 파고가 낮았음. 하순에는 남해 서부해상과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그 밖의 전 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음.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1~2015년) 8월 상순에는 남해 및 제주도해상(거문도, 거제도, 마라도)에서 파고 약간 높았으며,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낮았음. 중순에는 제주도해상(마라도)에서 파고 약간 높았으며,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과 남해해상(거문도, 거제도),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낮았음. 하순에는 남해서부해상(거문도)과 제주도해상(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과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 남해동부해상(거제도)에서 파고가 낮았음.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서해안의 인천은 8월 21일에 946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8월 19일에 397cm, 동해안의 포항은 8월 3·4일에 45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해양사고 빈발 시기(916척, 연중 제일 많음), 안전 항해 및 조업
- 태풍내습기 기상특보 발효 시 사고 증가
- 하계휴가 기간 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급증
- 피서철 선체, 기관 등 점검, 안전 운항

어업기상

- 8월의 연안 수온은 동해 21~26℃ 분포, 남해 22~27℃ 분포로 평년에 비해 1℃ 내외의 고온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서해는 23~27℃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예상 수온은 동해 : 21~26℃, 남해 : 22~27℃, 서해 : 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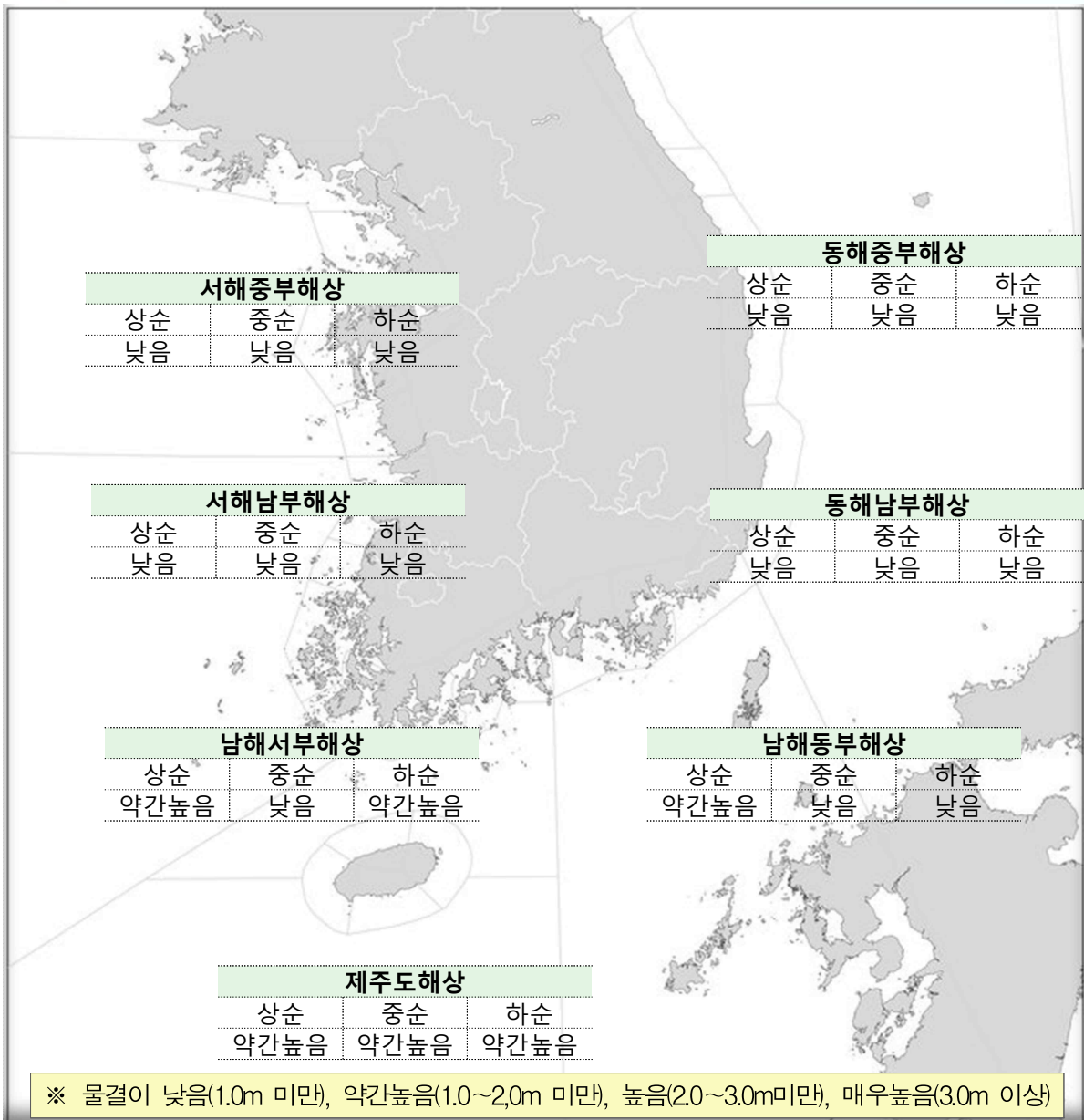
자료협조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해황

해황

▶ 8월의 해상 정보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최근 5년간('11~'15년) 8월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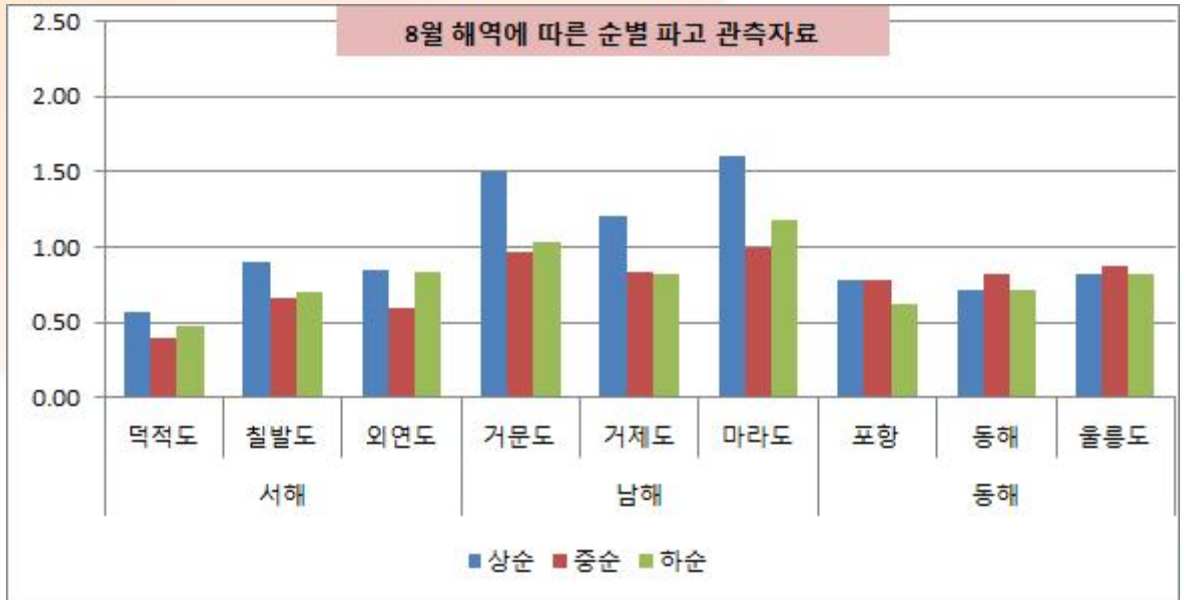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11 ~ 2015년) 8월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8월 상순에는 남해 및 제주도해상(거문도, 거제도, 마라도)에서 파고 약간 높았으며,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낮았음. 중순에는 제주도해상(마라도)에서 파고 약간 높았으며,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과 남해해상(거문도, 거제도),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낮았음. 하순에는 남해서부해상(거문도)과 제주도해상(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과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 남해동부해상(거제도)에서 파고가 낮았음. 8월에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제주도해상(마라도)에서 1.60m(상순)이었고, 파고가 가장 낮았던 곳은 서해중부해상(덕적도)에서 0.40m(중순)이었음.(그림 1)

※ 울릉도 부이 자료는 2012년도 신설로 인하여 해당년도부터 추가함.

▶ 최근 5년 및 2015년 8월 풍랑특보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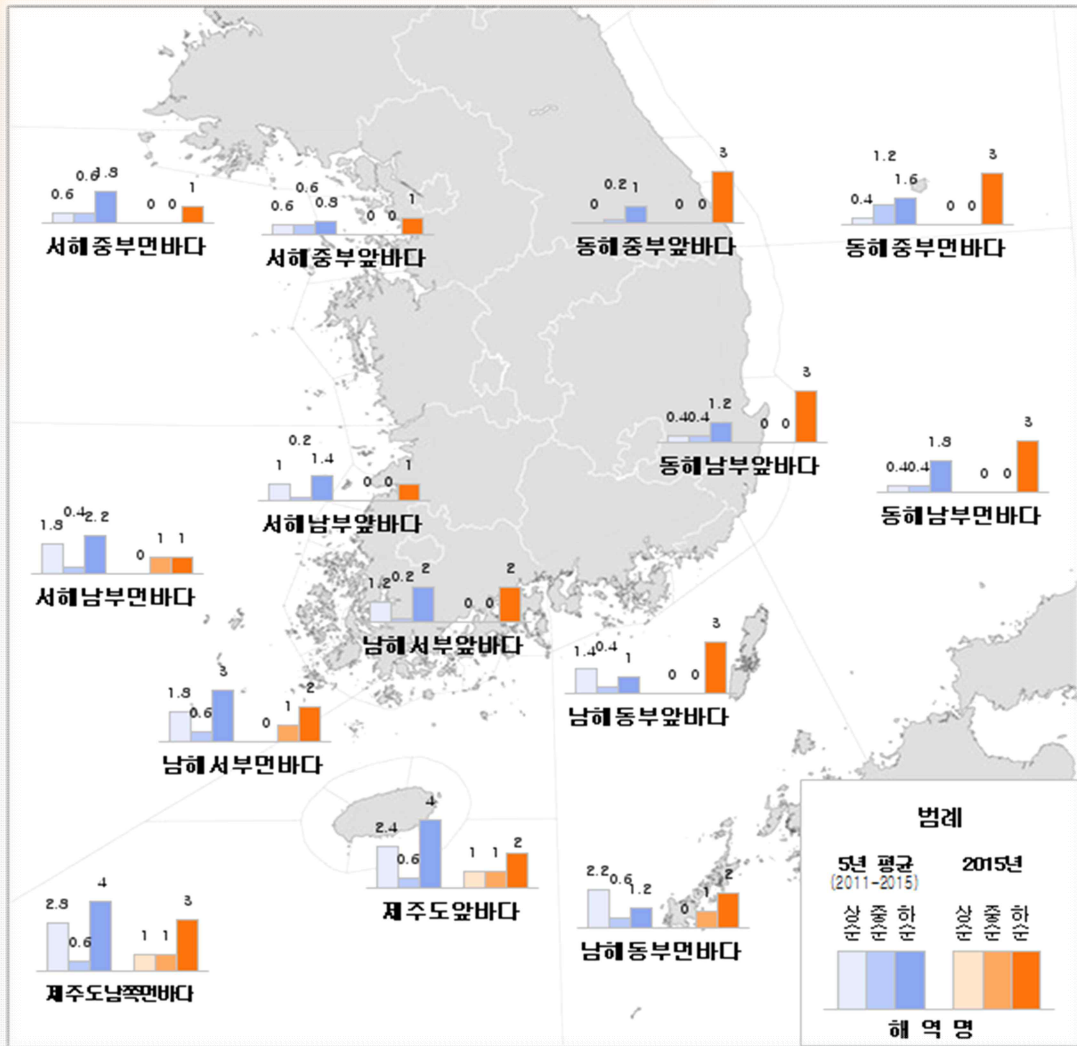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11~2015년) 및 2015년 8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8월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는 평균 1.2일로 전월(7월 평균 1.1일)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음. 순별 특보 평균일수는 하순(1.9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순(1.2일)이며, 중순(0.5일) 순으로 특보 일수가 나타났음. 지난해(2015년) 8월의 풍랑특보일수는 상순에는 풍랑특보가 0.1일로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1.2일)로 아주 적게 발표하였고, 중순의 풍랑특보가 0.4일로 최근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0.5일)로 비슷하게 발표하였으며, 하순에는 풍랑특보가 2.1일로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1.9일)보다 약간 많이 발표하였음. 최근 5년간 8월에 풍랑특보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역은 제주도남쪽면바다에서 총 2.5일로 발표하였으며, 동해중부앞바다에서 0.4일로 가장 적었음.

▶ **지난해(2015년) 8월의 해황**

2015년 8월에는 전 해상에서 남서계열과 북동계열의 바람이 주로 나타났음. 풍속도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 해상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65.6%, 5.0~9.9m/s의 바람이 약 26.2%의 분포를 보였고, 10m/s 이상의 바람은 약 5.5%의 분포를 보였음.

앞바다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67.0%, 5.0~9.9m/s의 바람이 약 23.5%, 10m/s이상의 바람이 약 3.0%로 나타남.

2015년 8월의 해역별 바람 상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역		주풍계	풍속 분포(%)			
광역	국지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앞바다	남서	76.6	15.4	4.0	0.1
	먼바다	남서~남동	71.6	22.5	3.5	0.0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남동	66.4	24.4	4.7	0.4
	먼바다	남서~남동	79.1	15.4	1.2	0.1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	57.3	28.8	8.9	4.0
	먼바다	북동, 남서	57.0	36.5	4.5	0.8
제주도	앞바다	북동~동	63.5	26.5	2.8	2.5
	남쪽먼바다	북동~동	49.8	42.7	5.4	0.8
남해동부	앞바다	북동	69.1	25.2	1.2	0.7
	먼바다	북동, 남서	55.8	37.7	3.0	1.0
동해남부	앞바다	북동, 남서	60.3	27.0	8.7	2.2
	먼바다	북동, 남서	65.4	27.1	2.9	2.9
동해중부	먼바다	북동, 남서	68.6	22.2	3.0	3.4
전해상			65.6	26.2	4.2	1.3

작년(2015년) 8월의 해역별 파고분포를 살펴보면, 전 해상에서 2.0m 이하의 파고가 약 86.0% 이상으로 낮은 파고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0m미만의 낮은 파고는 서해상이 8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2.0m이상의 파고는 제주도해상이 14.0%, 동해상이 10.2%를 보임. 5m이상의 파고는 동해상에서 3.2%로 나타났음

해역구분	파고분포(%)				
	<1.0m	1.0~1.9m	2.0~2.9m	3.0~4.9m	>=5.0m
서해상	86.0	13.3	0.7	0.0	0.0
남해상	56.1	37.7	4.3	1.6	0.3
제주도해상	46.8	39.2	11.7	2.3	0.0
동해상	73.8	16.0	3.7	3.4	3.2
전해상	69.4	24.1	3.8	1.7	1.0

▶ 피서철, 안전한 해수욕을 위한 이안류 예측정보서비스 이용하세요!!

기상청은 여름철 이안류 발생으로 인한 조난사고 예방을 위해 이안류 예측정보를 부산 해운대, 강원 양양 낙산, 제주 중문·색달, 충남 대천해수욕장 등 4곳에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이안류란?

이안류(離岸流, Rip Current)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하여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말함. 일반적으로 파도는 해안으로 밀려드는데 이안류가 발생하면 해안가 반대방향의 빠른 속도(초속 2~3m/s)로 피서객을 휩쓸어가기 때문에 여름철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임. 이안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해안가에서도 매년 100여 명이 이안류에 의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어 여름철 해수욕장 4대 위협요인(해상이변, 유해 생물, 오염물질, 안전부주의) 중 하나이며, 국제적으로도 중요이슈임.

이안류 발생원인

이안류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해안으로 밀려와 쌓이기 때문임.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에너지만 전달하고 바닷물 자체는 제자리에서 아래위로 요동치기만 한다. 반면, 수심이 얇은 곳에서는 파도가 깨지면서 바닷물 자체가 해안으로 밀려온다. 밀려온 바닷물은 다시 바다로 빠져나갈 곳을 찾으면서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데, 쌓인 바닷물은 육지를 향해 들어오는 파도가 약한 지점, 즉 바다 아래 골이 생긴 곳 등에서 깊은 바다 쪽으로 빠져나감.



그림 3. 이안류 발생 모식도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경사가 완만하며 물결이 부서지는 구역이 넓은, 일직선의 해변을 따라 좁은 수로를 형성하는 모래톱이 연안인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짐. 삼각파도가 일거나 풍랑의 변동이 심한 곳, 색깔 차이가 현저히 드러나는 곳, 거품, 해조 등이 바다를 향하여 일렬로 꾸준히 움직이는 곳에서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음.

이안류 예측정보 서비스 지역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드는 방향과 바람 등 기상조건이 맞아 떨어져 이안류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특정 해수욕장들이 있는데, 부산 해운대, 제주도 중문, 양양 낙산해수욕장, 그리고 대천 해수욕장이 이안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잘 부합하는 해수욕장임.

기상청은 이안류 예측시스템은 2014년도부터 최초로 개발하여 해운대, 대천, 중문, 낙산 해수욕장에 대한 이안류 예측정보를 제공 중에 있으며, 이안류 예측정보는 오늘부터 모레(3일간)까지 3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생산



하고, 일반 국민들이 위험정도를 그림 4.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 해수욕장 바로 알 수 있도록 4단계(안전-주의-경계-위험)의 정보를 색상(파랑-노랑-주황-빨강)으로 알기 쉽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이안류 예측정보 확인 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 홈 ⇨ 바다날씨 ⇨ 해상수치예측일기도
- ⇨ 해양지수정보 ⇨ 이안류 예측정보
- 테마예보의 해수욕장 예보에 ‘이안류 예측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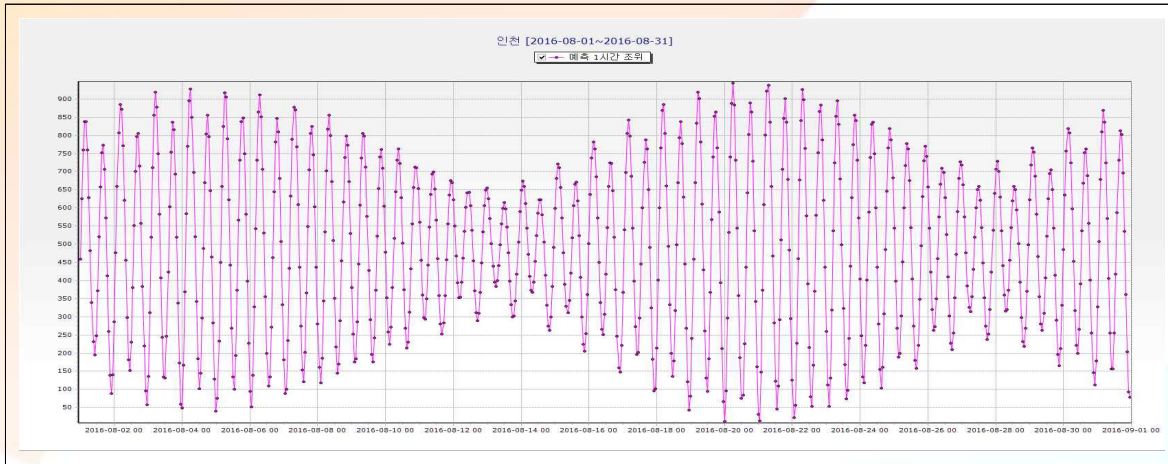
해안구분	수치예보	특정예보	해양지수정보	일일기상정보									
이안류 예측정보													
해운대 해수욕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중1동) 2018년 07월 27일 08:00 발표													
이안류	위험 경계 주의 안전	오늘(27일)			내일(28일)			모레(29일)					
		08	12	16	18	08	12	16	18	08	12	16	18
중문·색달 해수욕장(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례동) 2018년 07월 27일 08:00 발표													
이안류	위험 경계 주의 안전	오늘(27일)			내일(28일)			모레(29일)					
		08	12	16	18	08	12	16	18	08	12	16	18
낙산 해수욕장(강원도 영양군 강현면 진전리) 2018년 07월 27일 08:00 발표													
이안류	위험 경계 주의 안전	오늘(27일)			내일(28일)			모레(29일)					
		08	12	16	18	08	12	16	18	08	12	16	18
대천 해수욕장(충청남도 보령시 대천5동) 2018년 07월 27일 08:00 발표													
이안류	위험 경계 주의 안전	오늘(27일)			내일(28일)			모레(29일)					
		08	12	16	18	08	12	16	18	08	12	16	18

▶ 2016년 8월 조석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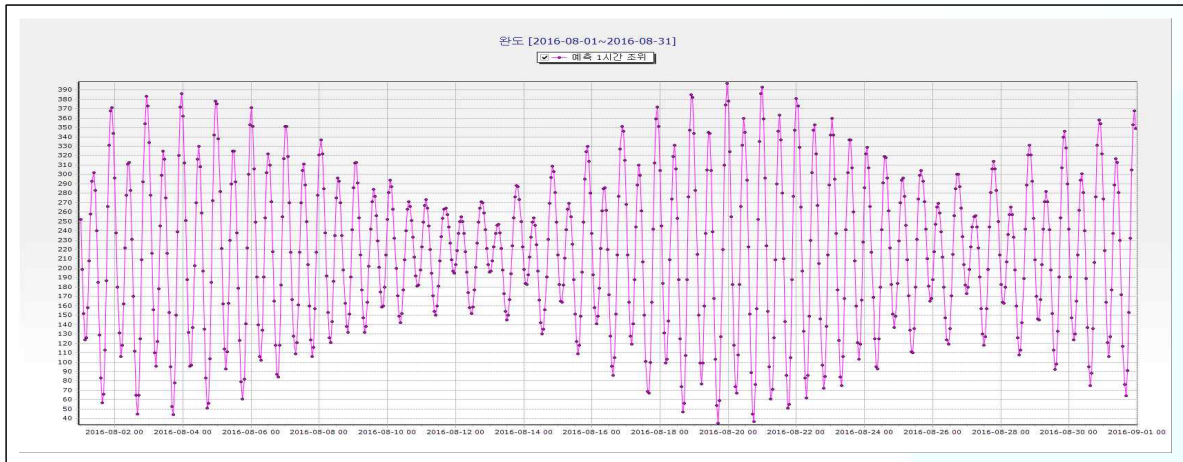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8월 21일에 946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8월 19일에 397cm, 동해안의 포항은 8월 3·4일에 45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역	지역	대조기(삭 8. 3)		대조기(망 8. 18)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서해안	인천	919	05:07	890	04:40
	안흥	687	04:11	669	03:47
	군산	716	03:27	690	03:04
	목포	497	02:33	466	02:07
남해안	제주	289	23:33	292	23:06
	완도	386	22:50	389	22:26
	마산	207	21:33	204	21:12
	부산	138	21:03	138	20:42
동해안	포항	45	15:09	41	15:04
	속초	48	14:53	48	14:31
	울릉도	40	14:17	35	1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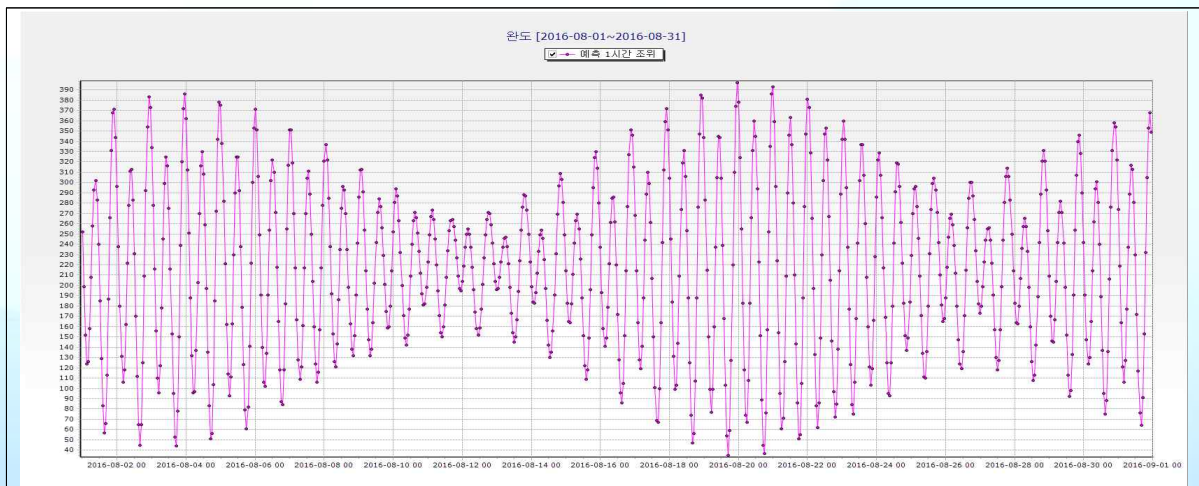
2016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ARS(1588-9822), 조석예보앱(Androi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년 8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16년 8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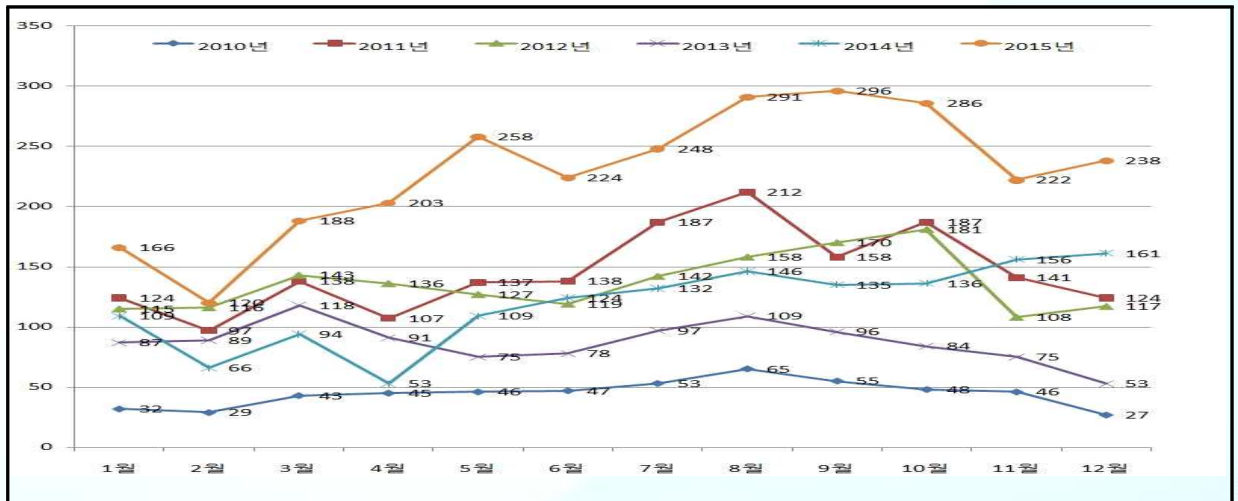
< 2016년 8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 해양사고 통계 (최근 5년간, '11.1.1 ~ '15.12.31)

-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8,592척(58,908명)이 발생하여 선박 8,255척(96.1%) 및 선원 58,074명(98.6%)이 구조되고, 선박 338척(3.9%) 및 선원 834명(1.4%)이 사망(623명)·실종(211명)되는 인명피해 발생하였음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8,592	58,908	8,255	58,074	338	834	623	211
2015년	2,740	18,960	2,639	18,848	101	112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485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 월별 선박사고 현황



○ 해양사고 현황(8월)

- 최근 5년간 8월의 해상조난사고는 916척으로 7월 805척 대비 약 13.8%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7월부터 8월 기간 중 사고 증가 추세
- 주요 사고유형은 기관고장(218척), 충돌(131척), 침수·침몰(107척) 순으로 발생하였고, 주요 발생원인은 운항부주의(334척)과 정비불량(278척)임

해양 안전정보(8월) - 해양긴급신고 전화

- 해양사고 빈발 시기(916척, 연중 제일 많음), 안전 항해 및 조업
 - 해양사고 916척 중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54.5%인 499척 발생
 - 수상레저기구에서의 사고는 168척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
- 태풍내습기 기상특보 발효 시 사고 증가
 - 풍랑주의보 이상 발효된 기상 불량한 해상에서 해양사고 발생
 - 태풍 특보 등으로 인한 사고가 89척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
- 하계휴가 기간 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급증
 - 피서기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 낚시어선 등 레저선박의 사고 증가

해양사고 방지대책 - 해양긴급신고 전화

- 태풍 내습기 기상정보 확인, 사전 피항 및 피해예방을 위해 양륙
 - 기상 악화시 외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형 어선, 예인선은 기상정보 확인 후 악천후 예상 시 무리한 운항 자제
 -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해역 피항, 소형어선은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 결박
- 고온다습한 여름철, 화재예방을 위한 선내 전기설비 수시 점검 필요
 - 고온다습한 여름철 선내 전기절연 상태가 불량하여 화재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특히 FRP 어선은 조업 출어 전 선내 절연상태 점검 확인 필요
- 피서철 선체 및 기관 등 점검, 안전 운항
 - 피서철 많은 국민이 바다를 찾으므로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전 여객선의 선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운항규칙 준수
- 해수욕장 인근에서 운항중인 수상오토바이 및 요트 등 사전 피항
 - 바다를 처음으로 찾는 시민은 피항방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므로 해수욕장 인근해역 항해 자제 및 수상오토바이·요트 등에 대해 사전 피항
- 안전 경각심이 무감각해지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 필요
 - 여름철 집중호우와 잦은 안개, 고온다습하여 선원 집중력이 저하되어 안전에 무감각해지는 시기이므로 무리한 조업 및 항해 자제(충분한 휴식 필요)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8월에 주의해야 할 해양사고 및 예방대책

◆ (어선) 전복·접촉사고가 연중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중 두 번째로 높음

○ 최근 5년간 어선 월별 전복·접촉사고 현황(2011~2015, 단위 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복	12	6	5	8	4	13	14	27	12	6	14	13	134
접촉	4	2	3	2	1	6	2	6	5	4	-	3	38

◆ (비어선) 사고건수가 연중 가장 많고, 선종별로는 객선·기타선의 사고가, 사고유형별로는 좌초·접촉사고가 연중 8월에 가장 많이 발생

○ 최근 5년간 월별·선종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2011~2015, 단위 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여객선	10	15	17	15	19	18	20	23	19	18	8	12	194
기타선	41	41	70	67	94	82	99	146	100	116	85	48	989

※ 주 : 기타선은 모터보트, 동력보트 등임

8월 주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 어선 좌초사고 예방

○ (사고사례 및 취약점) 배수갑문에 근접하여 조업 중이던 어선 A호가 갑문개방으로 급류에 휩쓸려 전복사고 발생, 선원 3명 사망

→ (개선방안) 선장은 사전에 조업 예정지역의 주변 환경이나 시설물 특성 등을 파악하여야 함. 배수갑문이 열리는 경우 빠른 유속에 휩쓸려 선박이 전복될 염려가 있으므로 배수갑문 근처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 여객선 좌초사고 예방

○ (사고사례 및 취약점) 여객선 B호가 항로 상에 정류하고 있는 낚시어선을 피하려고 저수심 해역으로 진입하여 좌초사고 발생, 우현 프로펠러 날개 2개 손상

→ (개선방안) 연안 항해를 할 때에는 수로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하여야 함. 연안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수온 동향

제공 : 국립수산물과학원

★ 8월의 예상 수온

8월의 연안 수온은 동해 21~26℃ 분포, 남해 22~27℃ 분포로 평년에 비해 1℃ 내외의 고온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서해는 23~27℃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동해 : 21 ~ 26℃ 분포
- 남해 : 22 ~ 27℃ 분포
- 서해 : 23 ~ 27℃ 분포

▶ 지난달 수온 분포

7월의 연안수온은 월평균 19.2~25.4℃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20.4~22.1℃, 남해연안은 19.2~22.8℃, 서해연안은 21.9~25.4℃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7월 표층 수온분포는 동해 연근해역은 22~25℃로 평년에 비하여 1℃ 내외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고, 남해 연근해역은 23~27℃로 평년에 비하여 1℃ 내외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으며, 서해 연근해역은 22~25℃로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임.



어장 분포

7월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멸치, 갈치, 살오징어는 평년수준이었으나 고등어, 전갱이, 참조기는 평년비 부진하였다.

8월에 들면 대형선망어업은 전갱이, 고등어, 살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대마난류의 흐름을 따라 제주 주변해역에서 동해남부에 걸쳐 형성되는 어장과 서해 중남부 어장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멸치어업은 기선권현망어업이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조업을 이어나가겠다. 근해안강망어업은 황해연안냉수와 황해 난류 사이에 형성되는 수온전선대를 따라 서해남부해역을 중심으로 갈치, 참조기, 살오징어 등을 조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살오징어와 갈치를 대상으로 서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조업하겠고, 남해중부해역에서 일부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외끌이대

형저인망어업은 제주도 동부 및 남해 중부해역에 걸쳐 눈볼대, 황돔,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다.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은 눈볼대, 가자미류,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남해 동부해역과 동해남부해역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경북 및 강원연안을 따라 가자미류, 도루묵, 청어, 새우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지난 가을, 겨울철에 발생한 개체들이 북상하여 여름철 어기가 진행되겠다. 동해 울릉도 주변해역과 서해 중남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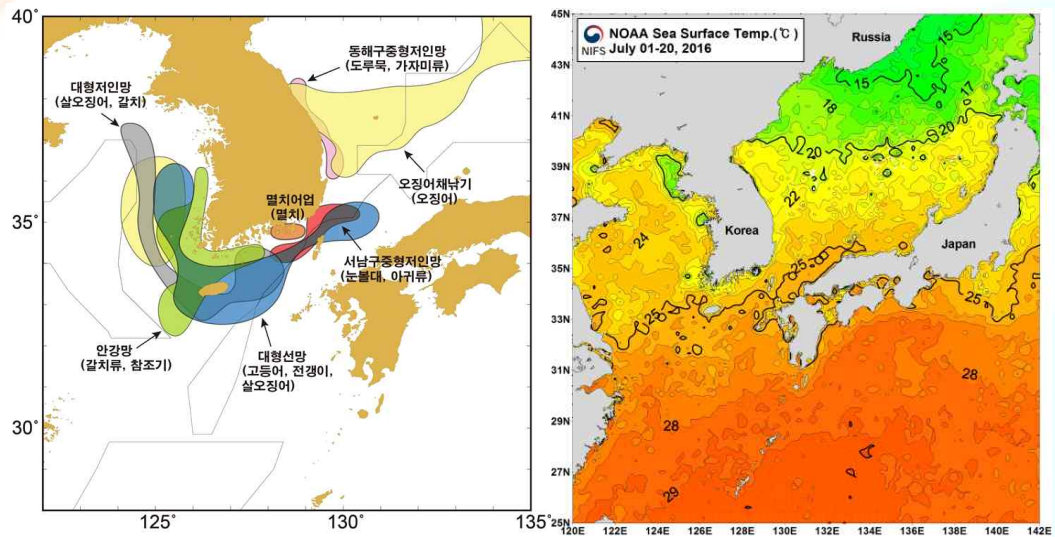


그림 5. 광역 수온 분포(위성) 및 어업별 예상어장도(7월)

고 등 어	동중국해와 제주 주변해역에서 산란(4~6월)을 마친 어군이 난류세력을 따라 북상회유하여 대마난류 세력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주변해역 및 서해 중남부해역(고등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어획량이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오징어	서해 전해역과 동중국해, 동해 중부해역 및 대화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어, 본격적인 여름철 어기가 시작되겠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멸 치	기선권현망어업에서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남해연안으로 가입된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순조 또는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갈 치	서해 남부해역에서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북부 동중국해까지 어장이 형성되며 중심어장은 서해 남부 근해와 제주주변해역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중 어획량이 가장 많은 주 어획시기에 접어들겠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 어획물 중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여전히 높아 소형개체를 대상으로 한 어획자제가 요구된다.
참 조 기	올해 신설된 7월 한 달간의 금어기를 끝내고 정상적인 조업을 재개하겠다. 서해남부해역과 제주도 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주 어획시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는 어획량이 많지 않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예상된다.
기 타	망치고등어는 제주남부해역을 중심어장으로 순조로운 어황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꽁치는 어기가 끝나고 한산해질 전망되며, 말쥐치는 금어기(5~7월)가 끝나고 조업이 재개되겠다.



▶ 냉수대

7월초에 부산~기장연안에 약한 냉수대가 발생하여 7월 4일 냉수대 발생 주의 정보가 제공(부산 기장 표층수온 14.9℃ 까지 하강)되었음.

8월에는 동해 중부 및 남부에서 남풍계열의 바람의 강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냉수대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됨.

▶ 해파리

7월에 약한 독성의 보름달물해파리가 평년과 비슷한 빈도로 동서·남해 연안에 출현하였고, 일부 해역은 밀집 출현하였음. 강독성의 노무라입깃해파리는 7월 평년보다 약간 높은 빈도로 동서·남해 및 제주연안에 출현하였고 일부해역(연평도, 군산 비응도, 진도 불모도, 여수 소리도, 나로도, 완도 연안, 통영 옥지도, 부산 고리, 울산 정자, 경북 영덕, 포항, 울진 연안, 제주 차귀도, 종달리 연안)에 밀집 출현하였음. 강독성의 커튼원양해파리는 동해와 서해 연안에 출현하였고, 일부해역(전북 군산 비응도, 경남 통영, 남해 연안, 부산 태종대 연안, 강원 동해 초암, 묵호 연안)에 밀집 출현하였음. 강독성의 유령해파리는 울산 주전, 강원 속초 연안에 저밀도로 출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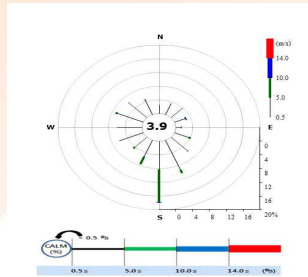
8월에는 보름달물해파리가 전국 연안에 밀집 출현이 지속되고,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전국 연안에서 출현 증가가 예상되며, 기타 독성해파리가 제주, 남해, 동해 해역에서 계속 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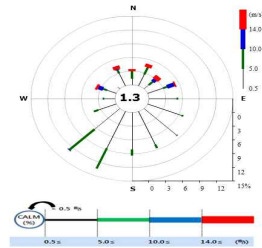
7월은 유해성 코클로디니움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7월 말경부터 일사량 증가와 수온 상승으로 인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코클로디니움 적조가 발생하여 8월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대량 출현할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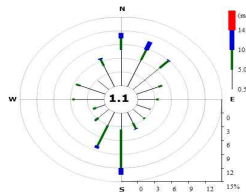
8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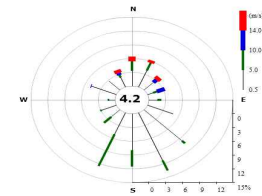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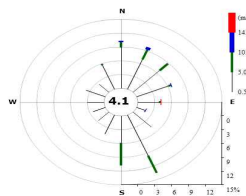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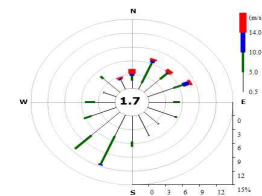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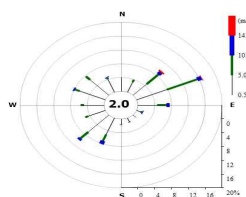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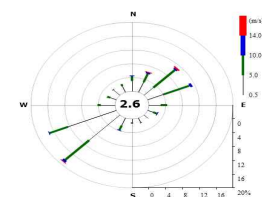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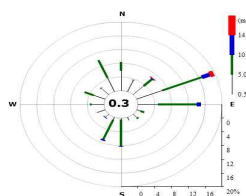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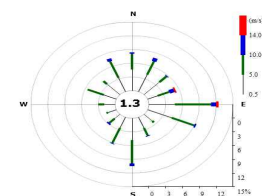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먼바다)



거제도(남해동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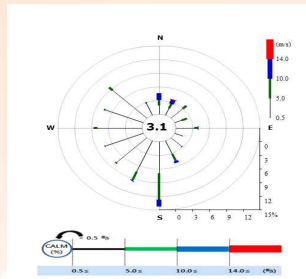
추자도(남해서부서쪽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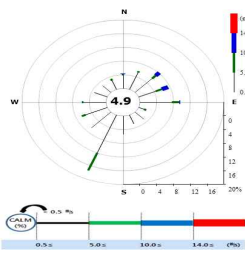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남쪽먼바다)

그림 6.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5년 8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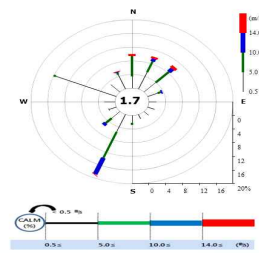
8월의 해상풍(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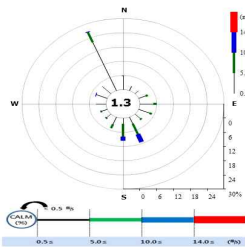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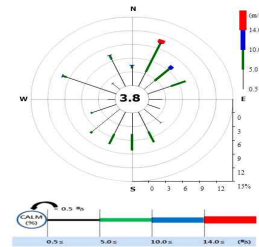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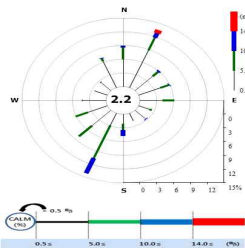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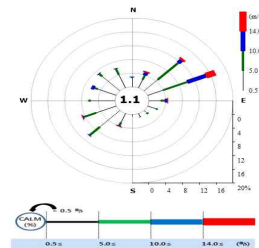
십이동파(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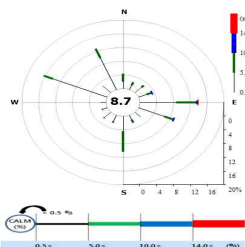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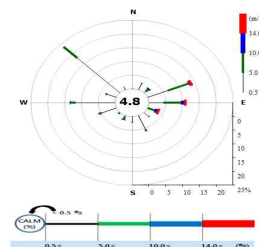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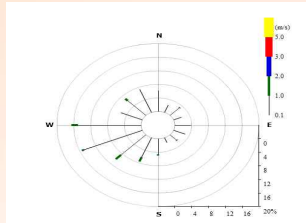
해수서(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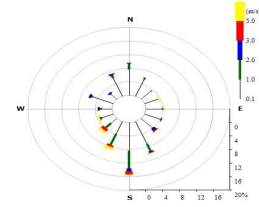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그림 7.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5년 8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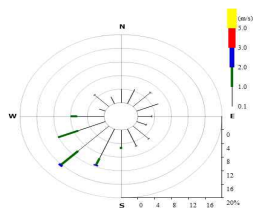
8월의 파랑(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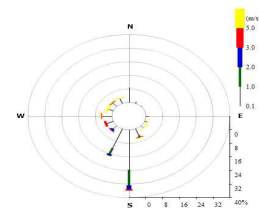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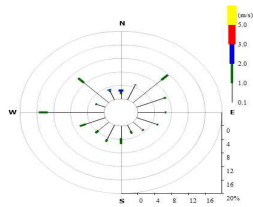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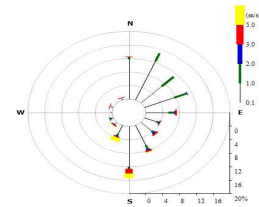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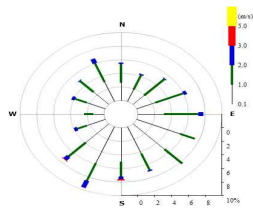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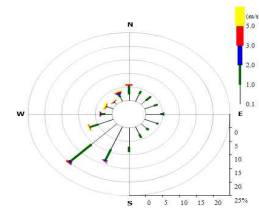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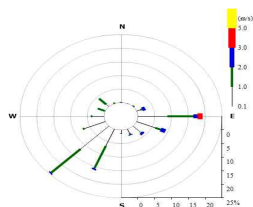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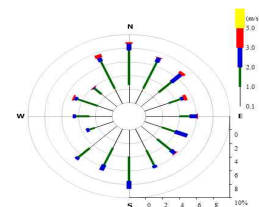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추자도(남해서부서쪽면바다)



마라도(제주도남쪽면바다)

그림 8. 해양기상부이 관측 파랑('15년 8월, 파랑장미)

【참고자료 2】

▶ 8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일 시	선 명	피 해	사 고 원 인
'15.8.13 02:01	9동*호 (인천, 예인선, 27톤, 승선원 1명, 강선)	침몰	협수로의 강한 조류로 인하여 침몰 ※ 당시기상 : 남풍, 4~7m/s, 파고 0~0.5m
'15.8.20 22:40	2013대*호 (통영, 근해통발어선 27톤, 승선원 11명, FFP)	침몰	화물선 GU0***호(1,989톤, 화물선)가 투망 중인 어선 2013대*호를 발견치 못 하고 좌현 선수부분을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함 ※ 당시기상 : 남서풍, 8~10m/s, 파고 1~1.5m

